

한국출판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역사적으로 산업적 기반 취약 ...

제도적 지원과 책읽기 운동으로 극복해 나가야

김경희 | 지식산업사 대표

김병준 | 지경사 대표

김종수 | 한울 대표

이중한 | 출판평론가·사회

지난 한세기동안 우리 출판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문화운동체로서 자기 사명을 다해왔다. 그러나 새 천년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 출판은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일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적인 기반을 닦기도 전에 불어닥친 디지털 혁명이 우리 출판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출판이 위기에 놓이게 된 원인과 그 타개책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았다.

이중한 —— 지금 우리 출판계는 다양한 매체의 발전과 함께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출판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면 우선 지난 한세기 동안 한국 출판계가 걸어온 자취를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 지난 20세기 전반기 한국 출판계는 황무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체제에서 겨우 해방돼 출판의 싹이 트는가 싶었는데, 분단과 6·25를 겪으면서 초토화됐지요.

또한 후반기에는 거의 40여년 동안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출판활동이 제약받았습니다. 정리하면, 20세기 한국출판은 식민지와 전쟁, 군사정권하에서 기사화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준 —— 그동안 우리 출판계가 겪은 변화는 많지만, 무엇보다도 급속한 양적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1천여종이었던 발행종수는 현재 4만여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27억불, 약 3조원에 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출판이 크게

신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수 ——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현재의 출판물들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오히려 협소해진 측면은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벼움'을 쫓았는데, 출판물도 그런 경향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을 출판물로 외화시키는 작업이 부진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 출판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딛고 성장한 출판

이중한 —— 저는 한국출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출판이 운동체로서 성장한 점을 들고 싶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독립운동의 중심매체 역할을, 해방 후에는 해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했고, 60년대에는 교양운동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 80년대까지 계속 정치체제운동에 참여한 것이 우리 출판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적인 기반 마련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상업적인 문제와 현실적으로 부딪친 것이



이중한

“일제치하에서는 독립운동, 60년대는 교양운동, 7,80년대까지는 정치체제 운동에 참여한 것이 우리 출판의 역사입니다. 출판이 운동체로서 성장하다보니 산업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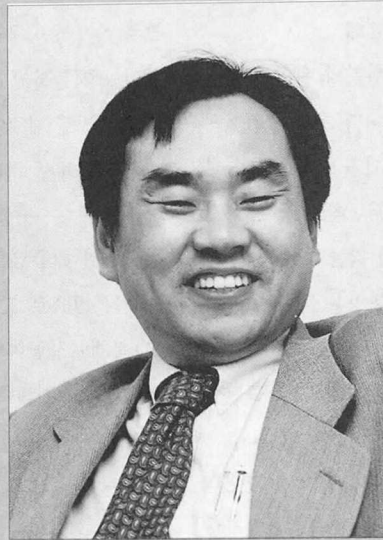
김경희

“교육과 언론 그리고 출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출판인들이 먼저 나서서, 언론계, 교육계와 함께 책읽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문화경쟁시대에 창조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책읽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각을 달리하면
우리 출판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우리 출판계는
국제적인 경쟁사회에
돌입했습니다만,
이미 수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합니다.”



김병준



김종수

“정부에서 좀더
정책적·제도적으로
출판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도서관에 책을
지원해주거나
복제보상금 제도를
입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출판진흥정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인쇄매체가 변화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김종수 선생님이 제기하신 우리 출판의 위기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출판의 위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과 원인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나 방안도 말씀해 주시지요.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출판시장 개방

김경희 ——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은 이미 디지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문명을 맞이하려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콘텐츠는 지난 일세기 동안 활자매체로 축적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외래문화도 제대로 축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준 —— 외국 출판사의 경우 디지털화를 맞이하더라도 과거에 축적한 콘텐츠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출판사들은 콘텐츠가 축적되지 않아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중한 —— 중요한 지적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원자재를 활용해 뭔가를 만드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랜덤 하우스가 반즈앤노블을 합병한 사례도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들 사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 —— 저는 콘텐츠를 축적하지 못한 것보다, 좀더 일찍 방향을 가늠했으면 가능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책을 사서 도서관에 꽂아놓고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 21세기로 넘어가는 지금에 와서야 ‘서지의 과학화’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정부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책을 구입해 도서관에 비치하고, 국민들은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우리도 정부와 출판업계가 함께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내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준 ——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 출판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시장이 개방되고, 저작권 보호문제가 출판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 출판계는 좋은 것은 국제적인 경쟁사회에 돌입했습니다. 영화산업의 예를 생각해보지요. 우리 영화산업도 처음 직배제가 도입됐을 때 한국영화는 끝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내영화가 직배 전보다 상당히 신장했습니다. 출판계에서도 이미 이런 조짐이 보입니다. 아직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지만 최근 국내의 한 아동도서 출판사는 캐나다에 180만권의 책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히려 해외시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출판현장에 있다 보면 출판도 산업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중한 선생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출판이 운동체로 성장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 출판이 문화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팔리는 책을 만들어야 할지 안 팔리더라도 좋은 책을 만들어야 할지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 자체가 출판계의 산업화를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회사들은 완전히 산업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중한 —— 모든 제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전제로 생산됩니다. 출판생산물의 기본적인 시장은 교육현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는 우리 교육현장이 출판물의 시장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책을 사기로 결정하면 최소한 2만5천부를 매입합니다. 좋은 책을 만들면 최소한 2만부를 팔 수 있는 기본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장 없이 국민의 가계지출로만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류를 쫓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책들을 출간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다시 말해 우리의 출판산업은 교육현장이 출판시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출판생산물의 유통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죠.

정책적·제도적인 지원 필요해

김경희 —— 우리 출판 위기의 원인은 출판계 안팎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출판계의 외부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거 출판자유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과 교과서·참고서·수험서 외에는 출판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적 풍토, 그리고 그로 인한 산업화의 취약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계 내부에서는 다소 재력을 축적한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출판에 재투자해 출판산업을 키우는 데 전력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출판물을 합리적으로 흡수해주는 도서관 체도를 비롯, 직·간접적으로 출판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출판업계는 뒤늦게라도 우리의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 우선 활자상태로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렇게 출판계 안팎이 같이 움직여야 우리 출판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종수 —— 저는 정부가 좀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배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국 사례처럼 정부가 도서관에 책을 지원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출판진흥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사실 UCC(세계저작권협약)의 경우 미국이 자국 출판계 보호를 위해 앞장서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적 체면을 의식해 UCC에 빨리 가입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와 출판계 지도층들의 지도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 저도 지금까지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현대국가에서 출판산업의 본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은 시민이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서관에서 흡수할 정책은 펼쳐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내년도 국가예산 가운데 문화예술분야의 비중이 1%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문화인프라 중 가장 저변이고 핵심인 출판 지원은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

김종수 —— 출판계에 좀더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게 하려면 출판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좀더 우수한 책을 만들어 내려면 저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한 페이지를 사적

으로 복사하면 우리 돈으로 60원에 해당하는 로알티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도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통과되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중한 ——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책을 관외 대출하면 대출료를 저자에게 돌려줍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제공하고, 복제보상금이나 대여료 방식으로 저자에게 저작료를 보전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김경희 —— 현대 사회에서 교육과 언론 그리고 출판은 정삼각형의 세 변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육과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도 출판을 키워야 합니다. 도서생산품이 나오지 않으면 교육의 질료와 심층보도의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중한 —— 옳은 지적입니다. 지식산업도 원자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책을 구체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국어교과서조차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도 책을 읽지 않아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는 대학입시 때문에, 대학가면 지쳐서 책 안 읽고 놀러 다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김경희 —— 최근 우리 출판계도 참고서·대학교재는 물론 단행본 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수 선생님 말씀처럼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 출판계를 지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지원이란 단순한 자금지원만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출판계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서, 언론계·교육계와 함께 전국민 책읽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앞으로 문화경쟁시대에 고급의 창조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책읽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달 잠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도 독서량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노력을 하고 있더군요. 예컨대 어느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아침 정구수업 전 10분 동안 책읽기 운동을 펼친 것을 기화로 일본 전역에서 책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본 국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내년을 '국제 어린이 책읽기의 해'로 정해 국회

차원에서 책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민적인 책읽기 운동 펼쳐야

이중한 —— 책읽기 운동을 펼치자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또 일본의 예를 들게 되는데요, 지난 1993년 일본의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첫번째 사업으로 학교도서관의 도서를 5년 동안 1.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4년만에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해부터는 독서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마다 독서지도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학교도서관의 장서를 늘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도서관은 너무 부족한 형편이고, 공공도서관은 단행본보다 신문이나 잡지를 사는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책을 도서관에 갖다놓으려는 독서운동이 아니라 지금처럼 책을 사서 읽으라는 독서운동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독서운동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합니다만, 지난 94년 만들어진 독서진흥기금도 아직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경희 —— 지금까지 우리 출판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결국 우리 출판계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출판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야 학계와 언론계, 더 나아가 국가사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중한 —— 실현가능한 핵심을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출판계가 피부에 와닿는 근시안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출판계가 모여 좀더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리·김정은 기자